

碩士學位論文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몽골관

— 『몽골기행』 과 『초원의 기록』 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수크바타르

2008年 8月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몽골관

— 『몽골기행』 과 『초원의 기록』 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秦 恩 淑

수크바타르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 年 8 月

수크바타르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2008年 8月

<국문초록>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몽골관
- 『몽골기행』 과 『초원의 기록』 을 중심으로 -

수크바타르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진 은 숙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소설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1996)는 ‘국민작가’라 불릴 만큼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생애 57편의 장·단편 소설을 저술하였으며 이외에 다수의 에세이와 대담집, 비평, 논술, 기행문 등을 남겼다.

시바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문명의 주변에 위치한 새외민족(塞外民族)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많았다. 작가가 된 후 이러한 새외민족의 흥망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소설을 비롯하여 대담, 에세이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관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다. 이처럼 그의 작품세계가 타민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일본작가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시바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외민족 중에서 시바는 특히 몽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다. 시바는 오사카의 국어학교 (현재의 오사카외국어대학) 몽골어학과에 입학하여 몽골의 언어,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였다. 주변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시바의 자세, 즉 변경사관(邊境史觀)의 원점은 대학에서 배운 몽골어이며 어린 시절부터 공상 속에서 꿈을 키워온 몽골을 위시하여 만리장성 밖의 새외민족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시바는 강연이나 에세이 등에서도 몽골이나 몽골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문화나 문명 또는 민족을 논할 경우에 몽골을 키워드로 삼아서 전개하는 수법을 택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몽골’은 시바문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바는 몽골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하여 『몽골기행(モンゴル紀行)』 (1974)과 『초원의 기록(草原の記)』 (1992)을 집필하였다.

『몽골기행』 과 『초원의 기록』 에서 유목민의 조상 흉노와 한족(漢族)의 관계 및 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와는 먼 역사, 소수에서

다수를 보는, 주변에서 중앙을 본다 고 하는 시바의 역사관(司馬史觀) 속에서 몽골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유목민족사회에도 관심을 두어서 이를 명쾌하게 ‘문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몽골의 유목민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문화로서의 유목의 특수성을 취급하여 타문화와 비교연구는 방대하게 많으며 유목이 세계 문명에게 끼친 역할도 여러 각도에서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바처럼 유목 자체를 명쾌하게 문명으로 보고 역사를 논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시바는 주인공 체베그마의 인생을 중첩하여 몽골의 현대사를 그리고 있다. 체베그마는 브리야트 출신 몽골인으로 몽골족으로 태어난 탓으로 네 개의 초원을 거치면서 살아온 길은 매우 험난하였다. 남편과 헤어지고 몽골에 가서도 무국적으로 10년 간을 살았으며 국제법에 의해 겨우 몽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26년 만에 재회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해 있고 병이 깊어서 몽골에 온 후 몇 달만에 숨을 거두었다. 시바는 몽골의 역사를 치열하게 살아온 체베그마라는 몽골 여성의 삶과 중첩시킴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몽골 기행』은 시바가 1973년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다음 집필된 것이며 이로부터 17년 후 1990년 시바는 재차 몽골을 방문한다. 이 두 번째 방문 후에 쓰여진 것이 『초원의 기록』으로 두 작품의 집필시기는 16년의 격차가 있다. 1973년 당시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1991년은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7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회의제(會議制)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기였다. 소련주도의 사회주의시대에서는 민족의 영웅 징기스 칸을 칭송하기는커녕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이데올로기 주도의 『몽골인민공화국통사』가 정부의 주도 하에서 제작되어 역사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1년 민주화가 된 후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국민대회의에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걸음을 댄 시기였다.

이와 같이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을 통해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몽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소수에서 다수를 보는, 주변에서 중앙을 보는 시바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시바 료타로의 작품세계	3
III. 시바 료타로와 몽골.....	7
IV. 시바 료타로의 새외민족에 대한 역사인식	11
V. 시바 료타로의 몽골체험과 작품세계	15
1.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	15
2. ‘유목 민족 처 농경 민족’ 관점	25
3. 몽골 근대사 속의 체배그마의 삶.....	34
VI.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5

I. 서론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소설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1996, 이하 ‘시바’라 칭함)는 ‘국민작가’라 불릴 만큼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¹⁾ 그는 생애 57편의 장·단편 소설을 저술하였으며 이외에 다수의 에세이와 대담집, 비평, 논술, 기행문 등을 남겼다.

시바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문명의 주변에 위치한 새외민족(塞外民族)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많았다. 작가가 된 후 이러한 새외민족의 흥망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소설을 비롯하여 대담, 에세이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관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다. 이처럼 그의 작품세계가 타민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일본작가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시바문학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새외민족 중에서 시바는 특히 몽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다. 시바는 오사카의 국어학교 (현재의 오사카외국어대학) 몽골어학과에 입학하여 몽골의 언어,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였다. 주변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시바의 자세, 즉 변경사관(邊境史觀)의 원점은 대학에서 배운 몽골어이며 어린 시절부터 공상 속에서 꿈을 키워온 몽골을 위시하여 만리장성 밖의 새외민족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시바는 강연이나 에세이 등에서도 몽골이나 몽골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문화나 문명 또는 민족을 논할 경우에 몽골을 키워드로 삼아서 전개하는 수법을 택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몽골’은 시바문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바는 몽골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하여 『몽골기행(モンゴル紀行)』(1974)과 『초원의 기록(草原の記)』(1992)을 집필하였다. 두 작품은 초원의 나라 몽골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민족인가를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서술하고 있다. 시바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창공 아래서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위를 질주하는 몽골민족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시적으로, 때로는 역사적으로 접

1) 2000년 6월 29일자 아시히 신문사(朝日新聞社)가 실시한 ‘지난 1000년간 일본작가 독자 인기투표’에 의하면 1위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2위가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였으며 3위를 시바 료타로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의 인기는 매우 높다.

근하여 기술하고 있다. 두 작품이 발간된 이후 그동안 멀리만 느껴졌던 몽골이 신비스러운 나라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매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외민족의 운명에 대한 감동에서 출발한 작품군 중에서 몽골을 소재로 삼은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의 두 작품을 통하여 시바가 초원의 나라 ‘몽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몽골과 시바의 관련을 고찰하고 둘째, 만리장성 이북의 기마민족의 유목문화와 만리장성 이남의 한족(漢族)의 농경 정착문화에 대한 시바의 관점을 고찰한다. 셋째, 『초원의 기록』의 히로인 몽골여성 ‘체배그마’의 질곡의 삶을 통하여 20세기 동아시아의 격동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치열하게 살아 왔던 몽골민족의 과란의 역사와 발걸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바 료타로의 작품세계

시바 료타로 (司馬遼太郎)라는 필명으로 더욱 유명한 일본의 역사 소설가 후쿠다 사다이치(福田定一)는 1923년 8월 7일 오사카시(大阪市) 나니와구(浪速区)에서 태어났다. 오사카시 난바시오쿠사 초등학교(難波塩草尋常), 우에노미야 중학교(上宮中学校)를 거쳐 오사카외국어학교 (현재의 大阪外国語大学) 몽골어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20세가 되는 1943년 졸업을 앞두고 효고현(兵庫県) 가코가와(加古川)에 위치한 전차연대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였다. 이듬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만주 육군 전차학교(滿洲陸軍戰車学校)에 배속되었다가 종전 직전에 간토(關東) 평야의 방어를 위하여 관동군(關東軍) 전차 60대와 함께 귀국, 도치기현(栃木県) 사노(佐野)에서 패전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전차부대에서 사관으로 지냈던 청년 시절의 경험은 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46년 교토(京都)의 신세카이신문사(新世界新聞社)에 입사하나 회사의 도산으로 1948년 산케이신문사(産経新聞社)로 옮겨서 문화부에 근무하면서 『명언수필 셀러리맨(名言隨筆、サラリーマン)』(1955)을 후쿠다 사다이치라는 본명으로 발표했다. 1956년 산케이신문사의 문화부 차장을 역임하였지만, 32세가 되는 해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려고 결심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 해 『페르시아의 환술사(ペルシヤの幻術師)』(1956)를 ‘시바 료타로’라는 필명으로 처음 발표하여 제8회 고단클럽상(講談俱樂部賞)을 수상하였다.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라는 필명은 『史記』를 쓴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司馬遷)의 ‘司馬’에서 따온 것으로 ‘사마 천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붙였다고 한다.

시바 료타로로서의 첫 데뷔작 『페르시아의 환술사』는 서기 1223년 페르시아 고원에 위치한 도시 ‘메남’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아시아와 유라시아대륙을 석권한 몽골의 20만 대군에게 살육을 당하는 상황에서 메남 출신의 환술사 ‘앗삼’이 몽골의 칸을 암살하기 위해 벌이는 암투를 그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몽골의 페르시아 공격을 배경으로 한 환술사의 이야기가 장대하게 펼쳐진다.

『페르시아의 환술사』의 발표에 이어서 『고비의 흉노(ゴビの匈奴)』(1957)를 발표하였다. 『고비의 흉노』는 징기스 칸의 40년에 걸친 서하(西夏)공격을 배경

으로 징기스 칸과 서하의 공주 리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포악하고 호색한 징기스 칸이 40년 동안 서하의 미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서하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려내고 있어 시바의 독특한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

1960년 시바는 『올빼미의 성(梟の城)』으로 제42회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하였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이가(伊賀)공격으로 쫓겨난 이가의 잔당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등의 권력자의 그늘 아래서 전개되는 처절한 사투를 종교세계를 배경으로 한 닌자(忍者)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 ‘忍法’ 붐을 일으킨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962년부터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와 『타오르라 검(燃えよ剣)』을 저술하였는데 특히 『료마가 간다』는 막말(幕末)의 난세에 활약한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라는 개성적인 인물조형에 성공하여 이 시점에서부터 그의 역사소설에 새로운 면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 『나라 훔침 이야기(国盗り物語)』를 연재하였는데 이듬해인 1966년에는 『료마가 간다』와 『나라 훔침 이야기』로 기쿠지칸상(菊池寛賞)을 수상하였다. 『료마가 간다』이외에 막말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15대장군의 비극을 그린 『마지막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最後の将軍—徳川慶喜)』(1967), 관군(官軍)에 저항한 가와이 쓰구노스케(河井継之助)를 주인공으로 한 『고개(峠)』(1967),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를 그린 『세상에 사는 날들(世に棲む日々)』(1971), 천성의 기술자 무라타 조로쿠(村田蔵六)를 주인공으로 한 『화신(花神)』 등의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戦国時代)를 무대로 작품으로는 『나라 훔침 이야기』 『세키가하라(関が原)』(1966), 오사카성 대해서 쓴 『성채(城砦)』(1971) 등이 유명하다. 그 외 『전운의 꿈(戦雲の夢)』(1961), 『공명의 갈림길(功名が辻)』(1965), 『하리마나다 이야기(播磨灘物語)』(1975) 등이 있다.

이어 시대적 배경이 메이지(明治)시대로 넘어오면서 작품의 소재는 더욱 다양해진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순사한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죽음에 비판을 가한 『순사(殉死)』(1967),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征韓論)에서 세이난(西南)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드라마틱하게 파헤친 대하소설 『나는 것처럼(翔ぶが如く)』(1976), 메이지 시대의 초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마사

오카 시키(正岡子規)와 아키야마(秋山)형제의 세 청년이 언덕 위의 구름을 지향하여 분투,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대작 『언덕 위에 구름(坂の上の雲)』 (1968~1972)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외에 예술원 은사상(芸術院恩賜賞)을 받은 『구카이(空海)의 풍경(空海の風景)』 (1975) , 『유채꽃 먼바다(菜の花の沖)』 (1983) 등의 작품도 있다.

시바는 총 57편의 장·단편 소설을 창작했으며 이외에 다수의 에세이와 대담집, 기행문을 남겼다. 에세이와 대담으로 유명한 것은 예를 들면 『일본사 탐방(日本史を探訪)』 (1971~1974) , 미국출신의 일본문화 연구자인 도날드·킨과의 대담 『일본사람과 일본 문화(日本人と日本文化)』 (1947) , 역사 에세이 『메이지라는 국가(明治という国家)』 등의 작품이 있다. 특히 『메이지라는 국가』는 메이지의 시대정신을 논하면서 오늘날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전 43권에 달하는 기행문 시리즈인 『가도를 가다 (街道を行く)』 (1971~1996)는 시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인간의 집단에 대하여(人間の集団について)』 등의 기행문 역시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에는 일본 재계 최고경영자 상담역을 맡기도 했으며, 1996년 작가로서의 생을 마감하였지만 ‘국민작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바의 작품은 여전히 일본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시바의 사후 그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시바 료타로 기념재단(司馬遼太郎記念財団)이 1996년 11월 1일 발족되었다. 재단의 사업으로서는 시바 료타로 기념관(司馬遼太郎記念館)의 운영, 사바 료타로상(司馬遼太郎賞)과 젊은 세대의 지적 탐구심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시바의 기일(忌日)인 2월 12일을 ‘유채꽃 기일(菜の花忌)’라고 하며, 도쿄경과 오사카에서 격년으로 ‘유채꽃 기일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유채꽃 기일’이라는 이름은 『유채꽃 먼바다』라는 장편소설에서 유래되었지만 시바는 들에 피는 야생화 특히 민들레나 유채꽃 같은 노란색 꽃을 좋아했다고 한다. 시바 료타로상은 시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회 문예, 학예, 저널리즘의 넓은 분야 속에서 창조성이 넘치는 그리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여 결정된다²⁾.

“1950년대까지의 일본인에게 요시카와 에이지(吉川栄治)의 소설이 역사였으며

2) 선정위원은 陳瞬臣, 도날드 킨, 井上ひさし, 柳田邦男, 養老孟司로 구성되어 있다.

60년대 이후의 일본인에게 시바 료타로의 소설이 역사였다”³⁾ 라고 평가 될 정도 시바는 역사소설의 대가였으며 오늘날 시바 만큼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일본인을 매료시킨 작가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시바의 역사소설의 특징은 작가 스스로 「私の小説作法」(1964)에서 말하듯이

빌딩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평소 오랫동안 살아 낮익은 거리도 전혀 다른 지리풍경으로 보여 …(중략)… 이러한 시점의 물리적 높이를 나는 즐겨 사용한다. 즉 한 사람의 인간을 바라 볼 때 나는 계단을 올라 옥상에 나가서 그 위에서 새로이 그 사람을 내려다본다. 수평면상에서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보다 다른 재미가 있다. (「나의 소설작법」)

ビルから下をながめている。平素は、住みなれた町もまるでちがった地理風景にみえ…(中略)…そんな視点の物理的高さを、私はこのんでいる。つまり、一人の人間をみるとき、私は階段をのぼって行って屋上に出、その上からあらためてのぞきこんでその人を見る。おなじ水平面上でその人を見るより別のおもしろさがある」(「私の小説作法」)⁴⁾

시바의 역사소설의 특징은 역사상의 문제를 완결한 사상(事象)으로 취급하여 조감(鳥瞰)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현대적 재단(裁断)과 해석의 묘미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과 인물의 해석은 단순히 역사소설 속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문명론과 일본 문화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바의 대담집과 에세이 속에서 자주 언급되어 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바의 ‘조감’의 구체적 방법은 역사의 흐름 전체를 가능한 객관적이고 또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점에 귀의한다. 이를 위해 시바는 창작에 임할 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후에 작품을 썼기 때문에 “순문학에서 시바 만큼 공부하는 자가 몇 사람 있을 것인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연구열은 유명하였다. 예를 들면 『언덕 위에 구름』을 쓰기 위해서 러시아어 자료 약 3천권을 참고하였으며 『료마가 간다』를 집필하기 위해 2천만엔 이상의 자료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철저한 연구 끝에 그 결과물로서 시바의 많은 역사 소설작품이 세상에 나온 것이었다.

3) 松浦 玲 「史料と文学的加工 — 歴史と歴史小説について」 『カイエ』 2-12, 冬樹社, 1979년 12월 p.132

4) 司馬遼太郎 「私の小説」 『司馬遼太郎全集』(第33卷) 1977 p.440

Ⅲ. 시바 료타로와 몽골

시바는 어릴 때부터 몽골 문화나 몽골 생활 등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사카외대에서 몽골어를 전공하였다. 시바는 몽골어가 평생의 이력이 되었다고 작가 스스로 밝힐 정도 몽골어는 그의 문학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바가 고이부치 신이치(鯉淵信一) 아세아대학(亜細亜大学)교수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몽골어를 배움으로써 일본어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었다. 역사와 민족, 사람을 보는 시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중앙에서 떨어져서 주변에서 혹은 소수에서 다수를 바라다봄으로써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작가가 될 수 있었다.

僕はモンゴル語を習うことで、日本語に興味を持つことができた。歴史や民族、人に対する視点を持つことができた。中央から離れた周辺から、あるいは少数から多数を見ることで、見えてくるものがある。そして作家になることができた。⁵⁾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중심어가 아니라 소수자의 언어, 주변어라 할 수 있는 몽골어를 접함으로써 주변 민족의 눈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시각, 소수에서 다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으며 그 덕분에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몽골과 몽골어는 시바문학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공상 속에서 몽골을 위시하여 만리장성(万里長城)의 새외민족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그의 역사관과 문학을 보는 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여덟 사람과의 대화(八人との対話)』(1993)에서도 중국세계에서 보는 몽골은 텅 비어있지만 그 텅 비어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농업문명의 중국과 조선, 베트남, 일본의 경관이 잘 보인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바의 관점에 대해 고이부치(鯉淵) 교수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바 선생님의 머리 어딘가는 항상 몽골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점이 있지요. 역사는 중첩되며 그 역사를 문자로 남깁니다. 그러나 몽골에는

5)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 朝日新聞社 2004 p.433

이러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중국문명에 대한 동경이나 존경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죠.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를 세웠지만 가능한 몽골이 중국문명에 물들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유교를 경원하여 라마교를 국교로 삼거나 과거제도를 등용하지 않았다는 점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중국문명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민족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바 선생님은 때로는 몽골의 입장에서 중국, 한국, 일본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司馬先生の頭のどこかには、いつもモンゴルがあったらうと思います。日本は中国と同じところがありますね。歴史は積み重ねられていき、文字でそれを書き残していく。モンゴルにはそういう考え方はありません。中国文明に対する憧れ、尊敬がもともとない。フビライ・ハンは元朝をつくりましたが、モンゴルが中国文明にできるだけ染まらないようにした。儒教を敬遠してラマ教を国教としたり、科擧の制度をとらなかつたり。そして中国文明に浸かりきった民族では、見えないものがあります。司馬先生はときにモンゴルの立場から、中国、朝鮮、日本を見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僕は思っています。6)

시바의 머리에는 항상 몽골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문명에 물들지 않았던 몽골의 눈에서 보면 중국문명은 물론이고 그 문명에 물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같은 나라가 잘 들여다보였을 것이라고 시바 문학에서 ‘몽골’의 차지하는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주변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자세, 즉 변경사관의 원점은 학생시절 배운 몽골어이며 어린 시절부터 공상 속에서 꿈을 키어온 몽골을 위시하여 만리장성 밖의 새외민족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몽골을 직접 소재로 한 작품 이외에도 시바는 늘 강연이나 에세이 등에서도 몽골이나 몽골문화를 예로 들어 전개하는 수법을 즐겼다. 특히 문화나 문명 또는 민족을 논할 경우에는 몽골이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여서, ‘몽골’은 시바 라는 작가의 인생과 작품을 이해하는 키워드의 하나라 볼 수 있다.7)

시바는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여 『페르시아의 환술사』와 『고비의 흉노』를 발표했다. 『고비의 흉노』는 전술한 것처럼 몽골의 서하 공격을 취급한 시바의 두 번째의 창작 소설에 해당하지만 “이 소설을 나의 첫 번째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시바 스스로 언급하고 있어 몽골을 다룬 소설이 시바 작품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바는 자신의 마지막 소설로 청나라가 일어나

6)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 朝日新聞社 2004 pp.422-423

7) 鯉淵信一 「司馬文学の地下水脈を流れる遊牧民族という大河」 『AERA Mook 司馬遼太郎がわかる』 朝日新聞社 2000年 8月 pp.49-52

는 17세기의 세계사를 무대로 삼은 『달탄질풍록(韃靼疾風録)』(1987), 마지막 작품으로 『초원의 기록』(1992)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바의 작가 인생은 몽골에서 시작하여 몽골로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바 문학에 있어서 몽골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시바는 대학에서 몽골어를 전공한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하여 그 감회를 『몽골기행』(1974)으로 완성하였고, 또 다시 17년 후에 재차 몽골을 방문하여 『초원의 기록』(1992)을 저술하였다. 그 외 『러시아에 대해서(ロシアについて)』(1986)에서도 몽골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시바는 『초원의 기록』을 완성한 후 고이부치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1992년 1월 3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덕분에 『초원의 기록』을 마쳤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매일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다 쓰고 나니 이런 증상은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름 놓고 있습니다. 원고를 쓴다는 고통을 넘어서 소년시절부터 갖고있었던 몽골에 대한 기분이 이것으로 성불(成仏)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몽골은 저에게 영원히 매력적입니다.

おかげ様で、『草原の記』を終えました。毎日、これを書いているとき、ハナミズが出たり、セキが出たりしてどこか不調でしたが、書きおえて消えました。やはりストレスがあったのだらうと思います。ほっとしています。原稿を書くという苦痛を越えて、少年の日から持ちつづけていたモンゴルへの気持ちが、これで成仏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ただ、それとはべつに、モンゴルは、永遠に魅力的ですね。8)

소년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몽골에 대한 감정을 『초원의 기록』에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에 대한 마음은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몽골에 대한 깊은 애정을 털어 놓고 있다.

시바의 작품은 몽골에서는 다른 일본작가에 비해서 많이 번역되어 있어 널리 알려진 편이라 할 수 있다. 『초원의 기록』은 일본 동경학예대학에서 유학했던 가르사이한氏에 의하여 1997년 몽골어로 번역되었다. 번역본 『초원의 기록』이 나오기 1년 전인 1996년에는 몽골 일본문화·문학센터의 대표 터무르바타르氏가

8)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朝日新聞社 2004 p.431

시바의 『최후의 장군』을 몽골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터무르바타르氏는 이 번역으로 1997년도 일본번역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⁹⁾ 그는 모스크바대학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하여 몽골국립대학에서 일본학자인 고이부치 교수의 제자가 되어 공부하였으며 그 후 동경외대에도 유학을 하였다. 이 번역본이 계기가 되어 몽골에서도 시바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초원의 기록』을 읽고 나서 몽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몽골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외에 『20세기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二十世紀に生きる君たちへ)』, 『고안의 횃불(洪庵のたいまつ)』, 『천산 산록의 녹음 속에서(天山の麓の緑の中で)』 및 『문명의 동점(文明の東漸)』 『메이지라는 국가』 『러시아에 대하여』 등의 에세이 작품도 차례차례 몽골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몽골에서는 그의 죽음을 몽골국영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저명한 작가 시바 료타로씨 급서하였다. 시바 료타로씨는 몽골을 사랑하여 『초원의 기록』을 비롯하여 몽골에 관한 몇 편의 저작을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몽골을 사랑해준 시바 료타로씨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것이다”¹⁰⁾라고 보도하였을 정도이다. 외국 작가의 부고를 국영방송에서 전하는 것은 몽골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몽골에서 시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몽골에서 시바의 작품이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지만 작품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 오·저랄갈사이한 「日本文学のセミナー: 司馬遼太郎とモンゴル」 日本大使館 2004년 10월 pp.46-49

10)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 朝日新聞社 2004 p.446-447 재인용

IV. 시바 료타로의 해외민족에 대한 역사인식

시바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문명의 주변에 있는 변방의 국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소설이나 좌담회, 에세이를 통하여 이러한 변방의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다. 이처럼 타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은 다른 일본작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바문학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몽골을 위시하여, 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바의 시각은 중국문명과 인도문명이라는 전통적인 문명사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외시되는 주변세계를 시야에 넣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특히 유목민족의 나라 몽골은 시바문학의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바의 문학세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바는 몽골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하여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 두 작품을 저술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유목민족에 대하여 몇 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

『역사의 무대(歴史の舞台)』(1984)는 옛날부터 동경하였던 서역(西域), 천산(天山) 산록의 대초원에 서서 오랫동안 그의 관심이었던 중국주변에 펼쳐진 초원 지역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풍모, 유목과 농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유목민족에 대한 시바의 애정이 엿 보이는 에세이집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이외에도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베트남,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등 타민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시바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제주도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한국방문을 통해 『고향을 잊을 수 없소이다(故郷忘れじがたき候)』(1968), 『한국기행(韓のくに紀行)』(1972), 『탐라기행(耽羅紀行)』(1986)을 집필하였다. 『고향을 잊을 수 없소이다』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한국기행』은 1971년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쓴 기행문이며 『탐라기행』은 주변 중의 주변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기행문이다. 『인간의 집단에 대하여』에서는 베트남의 정치와 사회를 논하면서 베트남의 장래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기탄 없이 논하고 있다.

시바는 학창시절 만주에서 학도병으로 출정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만주체험을

하였다. 그때 군사훈련을 받았던 북만주의 넓은 광야에서 몽고문자가 쓰여진 청나라 시대의 동전을 하나 줍고 거기에 새겨진 고대 만주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황폐해 가는 사막의 북방의 자연에 쫓겨서 만리장성을 향하여 비통한 피스톤침략을 감행한 새외민족의 운명의 허망함을 생각하고 눈물이 흘러 넘쳤다... (중략) ...만일 나의 목숨이 전쟁 후에도 살아남는다면 그들 (북방의 새외민족)의 멸망을 하나 하나 주제로 삼아서 내 나름대로 소설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고 몸을 떨면서 결심하였다. (『고왕금래』)

荒れ果てていく漠北の自然に追い立てながら長城にむかって悲痛ピストン侵略を加え続けた塞外民族の運命のはかなさを思って涙が溢れてた。... (中略) ...もし私の生命が戦いの後にまで生き続けられるならば、彼ら(漠北の塞外民族)の滅亡の一つ一つの主題を私なりにロマンの形で表現していきたいと、体のふるえるような思いで臍をきめた。(『古往今来』)¹¹⁾

이 참혹한 전쟁에서 혹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중국변방의 새외민족의 흥망을 테마로 하여 그들의 멸망해 가는 운명을 소설로 쓰고 싶다는 결심을 한다. 이러한 결심은 초기작품 『페르시아의 환술사』 『고비의 흉노』로 결심을 맺었으며 마지막 소설 『달탄질풍록』 『초원의 기록』 등에서도 시바의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시바는 『인간의 집단』의 후기에는 다음과 같이 중국문명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스무 살 전후부터 중국문명의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에 관심이 많았다. 북아시아나 서북아시아 그리고 그 외의 중국변방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대식(大食), 대월(大月), 유연(柔然), 선비(鮮卑), 오손(烏孫), 대완(大宛), 서하(西夏), 흉노(匈奴) 등의 동양사 속에 보였던 국가나 민족의 한자이름에 왠지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문명에 동화되지 않았다. 유교화 되지 않고 고유의 생활형태와 윤리를 지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들을 오랑캐라 불렀다. 몽골인도 마찬가지이고 몽골 대신 중국변방에 숨죽이고 딱 붙어있는 러시아도 그러했다. 유교화 된 주변국가도 있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세계지도에 남아있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뿐이며 일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일본은 모든 생활형태의 전부 유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유교적이라 말할 수 없지만 중국문명이라는 커다란 광원 속에서 자국의 문화

11) 司馬遼太郎 『古往今来』 鯉淵信一 「司馬文学の地下水脈を流れる遊牧民族という大河」 『AERA Mook 司馬遼太郎がわかる』 朝日新聞社 2000年 8月 p.32 재인용

를 변화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속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일본을 넣으면 겨우 세 나라 밖에 없다.(『인간의 집단에 대하여』)

私は二十前後のころから、中国文明の周辺にいる国家群に関心をもっていた。東洋史上、北アジアや西北アジアにその他の中国邊疆にあらわれては消える大食、大月、柔然、鮮卑、烏孫、大宛、西夏 匈奴といった国家、もしくは民族の漢訳名が、なんと妖しい魅力にみちていることであろう。かれらの多くは、中国文明に化せられたかった。儒教化せず、固有の生活形態と倫理をまもっていたために、中国からは蛮族とみられた。モンゴル人もそうであり、モンゴル人にかわって中国の邊疆にひっそりとはりついているロシア人たちもそうであるにちがいない。儒教化した周辺国家もあった。そのなかでいまの世界地図に生きてのこっているのは朝鮮とベトナムだけであり、日本も、そのなかに入れあうことができる。日本は生活形態をあげて儒教化しなかったから儒教的とは決していえないが、しかし中国文明という大きな光源に照らされて、自国の文化を変化させて行ったという点では、十分その仲間に入る資格がある。日本お入れると、三国である。わずか三国しかない。(『人間の集団について』) 12)

동양의 역사상 중국변방에 출현했다가 사라진 대식(大食), 대월(大月), 유연(柔然), 선비(鮮卑), 오손(烏孫), 대완(大宛), 서하(西夏), 흉노(匈奴)와 같은 변방의 민족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다. 이들 변방의 나라들은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의 사고방식과 습속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들은 오랑캐(夷狄)라 불렀다. 그리고 중국의 주변국가에서 중국문명을 받아들여서 동화된 나라 중에 오늘날 살아남은 국가는 한국, 베트남, 일본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도 ‘시바사관(司馬史觀)’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시바는 중국문명에서 발원한 유교가 한국을 위시한 중국의 주변국가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어서 그들을 동화시켰는가, 또 아시아에 미친 유교의 폐해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시아에 미친 유교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완벽한 중국체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베트남은 프랑스가 오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이 오기 전까지 그러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정체가 있다. (『역사와 풍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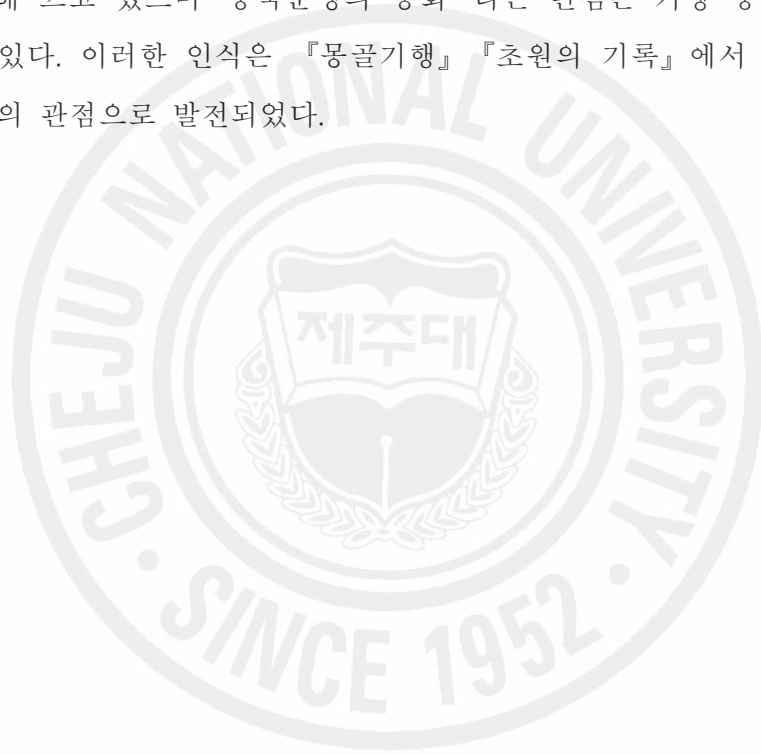
ベトナムと朝鮮の歴史をみますと、完璧な中国体制をとっておりますね。ベトナムはフランスが来るまで朝鮮は日本が来るまでそうです。ここにはすさまじい停頓がある。(『歴史と風土』)13)

12) 司馬遼太郎 「人間の集団について」 『司馬遼太郎全集』 第47巻 文芸春秋社 1984 p.452

13) 司馬遼太郎 『歴史と風土』 文芸春秋社 1999, 이은경 『시바 료타로의 한국 인식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

시바는 근대에서의 아시아의 정체가 중국체제, 즉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체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시바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중국문명을 수용하여 동화된 민족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베트남 세 나라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 일본만은 유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무로마치(室町)시대를 거치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정체를 체험하지 않은 독특한 나라라는 자부심, 자국에 대한 우월의식¹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몽골기행』 『초원의 기록』에서도 반복하여 중국문명에 동화되지 않는 유목민족에 대해 쓰고 있으며 ‘중국문명의 동화’라는 관점은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몽골기행』 『초원의 기록』에서 ‘농경문화 처 유목문화’의 관점으로 발전되었다.



학위논문 2001 p.22 재인용

14) 이은경 『시바 료타로의 한국 인식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3

V. 시바 료타로의 몽골체험과 작품세계

1.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

시바는 어렸을 적부터 꿈에 그리던 초원의 나라 몽골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 처음 방문은 1973년 8월 (12일~31일)이며, 두 번째 방문은 17년 후인 1990년 7월(8일~20일)이었다. 최초의 몽골을 방문하여 저술한 것이 기행문 『몽골기행』이다.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 1973년 11월 2일호부터 1974년 6월 14일호까지 연재되었다가 1974년 10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몽골기행』은 몽골의 풍토와 역사, 기풍에 대해서 폭 넓게 몽골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중심테마는 예전에 중국에 의하여 오랑캐라 총칭된 유목민족의 후에 몽골이 대국 중국과 소련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방문은 『초원의 기록』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킨다. 1991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신초(新潮)」에 연재되었다가 1992년 6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몽골기행』을 이어받고 있지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브리야트 몽골여성 체배그마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2대 황제 오코타이 칸이나 일본군부의 이야기 등을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종잡을 수 없이 쓰고 있다. 건조한 초원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말이다. (「구름」 『초원의 기록』 p.115)

われながら、とりとめもなく書いている。乾燥した草原の天にうかぶ雲のように、である。(「雲」 『草原の記』 p.115) ¹⁵⁾

라고 쓰고 있듯이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 않는다. 현재의 몽골과 13세기 2대 황제 오코타이 칸 시대의 이야기가 연상적으로 교차 전개되는 등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면서 때와 장소를 자유롭게 오가며 몽골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한 서술방법에 대해서 시바는 『초원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5) 본문은 司馬遼太郎 『草原の記』(新潮社, 1992)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 페이지 번호만을 기재한다.

이 초원에는 고대로부터 투명한 염세사상이 있어 그것도 이 내가 이 민족의 과거나 현재를 생각할 때 곤잘 기체와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한 요소이다. (「검은 모래땅」 『초원의 기록』 p.78)

この草原には、古代以来、透明な厭世思想があり、そのことも、私などがこの民族の過去や現在をおもうとき、つい気体であるかのような錯覚をおぼえる一要素なのである。 (「黒い砂地」 『草原の記』 p.78)

몽골인의 과욕(寡慾)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옛날부터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詩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 시는 산문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래도 산문으로 옮기려고 하면 내가 쓰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흥노」 『초원의 기록』 pp.15-16)

その欲望のすくなさについての確かに説明しにくいが、かねがねかれらの存在そのものが詩であると私は思ってきた。詩は散文に移しがたい。ことさらに移すとすれば、私が書いているようなかたちをとるほかない。 (「匈奴」 『草原の記』 pp.15-16)

시바에게는 몽골의 이미지는 詩이며 고착되지 않는 기체와 같은 존재로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상작용과 같은 서술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몽골기행』이 쓰여진 1973년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의 이야기이다. 지금은 당시와 비교해서 소련의 붕괴, 개혁개방 등 상황이 크게 변해 있지만 시바가 처음 몽골을 방문한 1973년은 일본과 몽골의 국교가 수립된 바로 이듬해였다. 당시 시바는 『나는 것처럼』 『구카이의 풍경』을 연재하던 중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몽골 방문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몽골 행을 결심하였다.

지금은 서울을 경유하는 도쿄 나리타(成田)공항 출발의 울란바타르行 비행편이 주 3회 있지만 당시 몽골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아니면 소련을 경유해야만 했다. 특히 1973년은 중소 대립이 한창인 때여서 친소련의 몽골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경유에는 너무 수속이 복잡하였다. 그래서 시바 일행은 니가타(新潟) 공항에서 소련의 하바로스크에 가서 다시 이르크츠크로 향한 다음 그곳에서 몽골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비행기로 몽골의 울란바타르로 입국하는 코스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르크츠크에서 비행기의 연착으로 몽골영사관이 문을 닫아버려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지만 영사관 부속인 몽골인 운전수의 호의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몽골입국비자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시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입국사증이 만들어졌다!

(아, 나의 몽골이여)

가슴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올라 외치고 싶었던 나의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어렵다. 18세 때부터 꿈속에서 그리던 나라로 이제 단 한번의 비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관문 보증수표를 손에 들고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흉노」 『초원의 기록』 p.214)

入国査証はできていた!

(わがモンゴルよ)

と、内心、感謝で叫びなくなる思いが湧きおこったのは、こればかりは余人に伝えがたい。十八歳のときから思い募らせていた国へ、あと一飛びでゆけるというのが、その関所手形を得てもなお、信じがたいほどの感じなおである。(「匈奴」 『モンゴル紀行』 p.214)¹⁶⁾

18세 때부터 꿈에 그리던 나라, 몽골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손에 넣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심정과 기쁨을 과감 없이 전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바 일행은 세 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몽골 고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었다.

시바는 『몽골기행』의 모두에서 소년시절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소년시절 몽상의 안개 속에 몸을 감싸고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나의 경우에 입가에 열은 수염이 날 때까지 이러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 때의 몽상의 대상은 동양사에 나타나는 이상한 민족에 대해서였다. 한족(漢族)은 자신들의 문화만을 우월하다는 의식을 중심으로 타민족을 생각하였다. (「니가타에서」 『몽골기행』 p.167)

少年のころ、夢想の霧の中ですくまっているほど楽しいことはない。

私の場合、口もとに薄ひげが生えてくるころになっても、この癖は癒らなかった。

そのころの夢想の対象は、東洋史にあらわれてくる変な民族についてだった。漢民族は、自分の文化のみが優越しているという意識を中心にして、他民族を考えた。(「新潟から」 『モンゴル紀行』 p.167)

시바는 어린 시절부터 동양사에 출몰한 이상한 민족, 흉노에 대해서 몽상하기를

16) 본문은 司馬遼太郎 『モンゴル紀行』 (『司馬遼太郎全集』 第48巻 文芸春秋社 1984) 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하 페이지 번호만 기재한다.

즐거하였으며 그러한 몽상의 버릇은 청년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쪽은 자신들을 중심(中華)라고 여기고 변방에 사는 흉노족을 오랑캐라 부르며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상은 17년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초원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저의 공상을 잠시 함께 해주시지요

몽골고원이 하늘에 가깝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이죠.

그곳은 하늘과 풀로만 되어 있다.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어서 그 생활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저 멀리 남쪽 낮은 구름에 펼쳐지는 황하 농경문명의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같은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안장도 없이 말에 직접 타고 있다. 말을 타서 바람처럼 달리고, 보름달과 같은 활을 당겨서 질주하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았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기원전 황하의 농민은 생각하였다.

그 집단은 푸른 창공과 맞닿을 정도로 높은 대지에 살고 양의 무리와 더불어 움직이며 때로는 만리장성을 넘어 와서는 — 북방 측에서도 할 말은 많겠지만 — 농업제국의 곡물과 옷을 갈취해갔다. 사람들은 그들을 흉노라고 불렀다. (「흉노」 『초원의 기록』 pp.5-6)

空想につきあっていただきたい。

モンゴル高原が、天にちかいといくことについてである。

そこは、空と草たけでできあがっている。人影はまばらで、そのくらしは天に棲んでいるとしかおもえない。

すくなくとも、はるか南の低地にひろがる黄河農耕文明のひとびとからみれば、おなじヒトの仲間とはおもえなかったろう。しかも、馬にじかに乗っている。騎乗して風のように駆け、満月のように弓をひきしぼり、走りながら矢を放つ

— あれは、人ではない。

と、紀元前、黄河の農民はおもった。

その集団は青穹が接するほどにたかだかとした大地に住み、羊の群れとともにうごき、ときには漠庭をこえてやってきては — 北方の側にも言いぶんがあるが — 農業帝国の穀物や衣をかすめとった。かれらのことを、ひとびとは匈奴とよんだ。 (「匈奴」 『草原の記』 pp.5-6)

소년의 몽상세계가 여기서서 ‘공상’이란 단어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몽골고원에서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리며 활을 쏘는 민족에 대한 공상이었다. 이러한 공상이 소년의 마음에 자리잡아 오랫동안 작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황

하(黄河) 농경문명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흉노’라고 불렸다. 이처럼 황하문명이란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흉노족의 삶을 보려는 시바의 독특한 관점이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의 첫머리에서 엿 볼 수 있다. 『가도를 간다』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편집부로부터 몽골탐방에 대한 제의 받았을 때 시바가 흔쾌히 수락한 것은 어린 시절의 이러한 몽상의 힘이 컸다고 『몽골기행』에서 말하고 있다.

모두의 문장에 이어서 어린 시절의 몽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당시의 나의 몽상은 한족에게서 이러한 이상한 문자를 뒤집어 쓴 민족을 마치 어린 아이가 우주인을 상상하듯이 온갖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민족의 이름이 이상야릇한 글자였기 때문에 우주인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나에게서 자극적이었던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오랑캐 ‘적(狄)’이라는 글자의 맵시며 금속적인 음의 경쾌함은 어떠한가. ‘오랑캐(狄)’은 막연하게 북방의 비한족(非漢族)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문자에 ‘개와 같은 녀석’이라는 기분이 있다. 개처럼 재빠르고 개처럼 무리를 이루며 개처럼 날쌔고 개처럼 중국문명에 무지하다는 점에 푸른 창공을 무지개가 수놓듯 초원을 달려나가는 오랑캐의 무리의 드높은 기상과 상쾌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니가타에서」 『몽골기행』 p.168)

當時の私の夢想は、漢民族からこういう奇態な文字をかぶせられた民族を、ちょうどいまの子供が宇宙人をおもような感じでさまざまに想像することだ。文字が奇態なだけに、宇宙人の夢想よりも、私には刺激的だったように思える。たとえば狄などという文字の形のよさといい、音の金属的な快さはどうであろう。狄は漠然と北方の非漢民族をさす言葉だが、文字に「犬のようなやつら」という気分がある。犬のように素早く、犬のように群をなし、犬のように剽悍で、犬のように中国文明に無知であるというところに、草原を駆ける狄の集團の、たとえば青穹を虹のつらぬくようなかたがたとした爽快さが感じられないか。(「新潟から」 『モンゴル紀行』 p.168)

시바는 어린 시절 갖가지 이상한 이름을 갖는 유목민족에 대해 어린아이가 우주인을 상상하듯이 온갖 상상을 펼쳐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상은 오랑캐라는 뜻을 갖는 ‘오랑캐(狄)’이라는 모멸적인 한자의 의미와는 달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를 질주해 가는 오랑캐 무리들의 모습에 드높은 기상과 상쾌함을 상상하였다. 한족은 오랑캐 무리들은 중국문명에 무지하며 중국문명에 대한 동경도 없으며 동화하려고도 하지 않는 민족이라 멸시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바는 중국의 체제, 즉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중국

문명에 일찍이 동화된 까닭에 한국, 베트남이 정복되었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시바는 이러한 시각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으며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 속에서도 자주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바의 역사인식과 몽골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지금도 ‘오랑캐’의 후예의 나라는 있다.

고비사막을 포함하여 표고 1200미터의 고원인 북방아시아의 일각에 있는 몽골인민공화국이 바로 그것이다. 예전에는 외몽고라 일컬어졌다. ‘外蒙’은 중국어이다. ‘外’라는 것은 한족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본래 몽골사람의 본거지는 중국 측에서 말하는 내몽고의 낮은 초원지대 보다도 오논강, 켈렌강이 흐르는 외몽골 고원에 있다.

いまも、「夷」の後裔の国はある。(「니가타에서」 『몽골기행』 p.168)

ゴビ砂漠をふくめて、標高1200メートルの高原をなす北方アジアの一角にあり、モンゴル人民共和国というのがそれである。かつては、外蒙といわれた。中国語である。外というのは漢民族の側からみてのそれで、本来、モンゴル人の故地は、中国側でいう内蒙の低い草原遅滞よりも、オノン、ケルレンの流れる外蒙高原にある。(「新潟から」 『몽골紀行』 p.168)

이어서 시바는 이러한 오랑캐 무리의 후예가 표고 120미터 고원의 북방아시아의 일각에 있는 지금의 몽골인민공화국이며 사회주의 국가임을 언급한다.

이 인민공화국의 국기가 질주하는 기마 유목민을 도안화하고 있는 것처럼 반세기 전에 혁명을 일으켜 역사상으로는 세계 제2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일부에서는 강렬한 근대화를 달성하면서도 대부분은 표고 1400미터 고원에서 유구한 시간을 견디어 내면서 고대 이후 유목이라는 생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펠트인 천막가옥도 기원전부터 변함이 없으며 기원전부터 마시고 있던 마유주를 여전히 마시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흉노」 『몽골기행』 p.216))

この人民共和国の国章が、疾走する騎馬の牧人を図案化しているように、半世紀前に革命をおこして古きからいけば世界第二の社会主義国でありながら、一部で強烈な近代化を遂げつつも、大部分は標高1400メートルの高原で、ほとんど悠久ともいべき時間に堪えつつ、古代以来の遊牧という生産形態をたもち、そのフェルトの天幕である家屋も紀元前から変わらず、さらには紀元前から飲みつづけている、馬乳酒をいまなお飲んでいるという国なのである。(「匈奴」 『몽골紀行』 p.216)

몽골인민공화국은 반세기 전에 혁명을 이루어 중국과 관계를 끊고 이를 위해서 제정러시아에 접근하거나 다음으로 소련의 지원을 구하거나 하여 1924년 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유목사회라는 고대의 집단형태를 갑자기 사회주의국가로 바꾸는 것은 인류최초의 시도였지만 이외로 농업사회를 사회주의국가로 바꾸는 것보다는 혼란이 적었을 것이라 작가 시바는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시바는 몽골이 사회주의국가를 채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かれらが社会主義をえらんだのは、マルクスのいう歴史の発展の結果ではなく、ただ漢人から草原を守りたかっただけだった。(「도시」『초원의 기록』 p.105)

그들이 사회주의를 택한 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역사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한족에게서 자신들의 초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뿐이다。(「城市」『草原の記』 p.105)

즉 몽골민족이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택한 것은 마르크스의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초원을 한족에게서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처럼 유목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변신한 몽골이지만 그 생활 형태 — 겐이라는 천막가옥, 마유주, 유목 등의 풍속은 13세기 원나라 시대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아 “세계에서 예가 없을 정도의 순박함을 간직한 나라 (モンゴル人のちょっと類のない淳朴さというは失われていない)”였다.¹⁷⁾

시바는 몽골에 들어가는 경유지인 하바로스크와 이르크츠크에서의 힘든 여행 끝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들어가자마자 자유스럽고 넉넉한 사람들과 거리의 분위에 감동을 받았다. 동일한 사회주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소련과는 다른 몽골의 이러한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유목민족이라는 점에 의한다고 판단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국가라고 해도 원래 인민 그 자체가 대범한 유목민족인 탓인지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자유스럽고 넉넉하였다。(「인민들」『초원의 기록』 p.251)

モンゴルは社会主義国といっても、元来、人民そのものが大らかな遊牧民族であるせいか、全体の空気がゆったりしている。(「人民たち」『草原の記』 p.251)

몽골사람은 유난히 손님을 좋아하여 특히 여행객을 좋아한다. 옛 몽골 풍습에는 모르는 손님이 와도 반드시 식사를 주고 재워준다. 가족이 모두 겐을 나서서 외출할

17) 司馬遼太郎『草原の記』新潮社 pp.104-105

때도 손님이 올 경우를 생각하여 식사를 탁자 위에 마련해 두었다. 손님은 거리낌 없이 켈 안으로 들어와서 준비된 것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 그대로 나가면 된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은 초원의 법도라 해도 좋다. 지금도 옛날도 유목사회를 지탱하여온 정신요소의 하나이다. 빼 속가지 침투된 이러한 습관이 몽골을 사회주의국가로 가능하게 한 커다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낙타들」 『몽골기행』 p.294)

モンゴル人はとびきり客好きだし、とくに旅人が好きである。むかしモンゴルの風習として、見知らぬ旅人が来れば何はともあれ食事を出してくれるし、泊めてもくれる。家族がせんぶ包を出払って外出するときは、留守中に旅人がきた場合のことを考えて、ご馳走を台の上にならべておく。旅人はぬっと入ってきてそれらを飲み食いし、そのまま出て行ってもいい。これらの心遣いというのは草原の掟と違ってよく、いまも昔もこの遊牧社会をささえてきた精神要素のひとつなのである。血肉にまで融けこんだこの習慣が、モンゴルにおいて社会主義を可能にした大きな要素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ラクダたち」 『モンゴル紀行』 p.294)

몽골사람 특유의 대범함과 물질에 대한 무욕,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등의 기풍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기풍은 몽골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유목이란 생활형태와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바는 울란바타르의 거리를 걷다가 정부가 인민을 교육하는 선전 포스트 한 장 붙어 있지 않는 거리의 모습을 보고 일본의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쇼와(昭和)시대의 잘못된 시대사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본국가는 메이지 시대가 되면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때까지 단순히 ‘농민(百姓)’이라 불리며 야요이(弥生)시대의 촌락민과 거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농민이 갑자기 국민이라는 다분히 추상성을 띤 존재가 되었다. …(중략)… 이처럼 메이지 시대에 일본국가의 인민(국민)이 성립하였다. …(중략)… 쇼와시대 특히 쇼와 10년대 (1935년대)에 들어서면 사정이 완전히 바뀐다. 정부가 열심히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교육 선전하여 단순히 인간이란 상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국민’이라는 이상한 단어조차 생겨났다. (「인민들」 『몽골기행』 p.253)

日本国家は、明治期に、小学校教育を重点としてさかんに国民教育をやった。それまで単に「百姓」とよばれて、弥生時代の部落人とさほど変わらない生活をしていた部落住民が、にわかには国民という、多分に抽象性を帯びた存在になった。…(中略)…そのようにして明治期に日本国家の人民(国民)は成立したが、…(中略)…昭和期に入り、とくに昭和十年代に入ると、事情が一変した。政府がさかんに「国民」たるべきことを教育宣伝し、単に人間であるという状態を否定し、それどころか「非国民」というふしぎな言葉までできた。(「人民たち」 『モンゴル紀行』 p.253)

사람을 국가의 규범에 맞추어 가려는 학교교육과 그로 인해 ‘국민’이 생겨났다. 특히 쇼와 10년대(1935)의 군국일본 시대에는 일본인은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만 존재할 뿐으로 국가의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非国民)’이라고 칭하여 비판을 받았다. 1935년에서 45년 간의 쇼와 10년 간은 제국주의 시대로 이차대전과 태평양전쟁이라는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다. 시바는 이러한 왜곡된 시대를 ‘비일본적인 시대’라고 하여 가차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학도병으로서 태평양 전쟁을 몸소 경험한 시바는 국가라는 ‘거대물체’가 국민을 이용해 무모한 죽음을 몰아갔던 시대의 안타까움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다.¹⁸⁾ 이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인간을 인민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몽골에 대해 감명을 받고 있다. 혁명후 반세기를 거친 몽골사회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시바는 유목사회의 장점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탓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시바는 『몽골기행』 마지막 장에서 30년 동안 꿈에 그리던 몽골여행을 마치면서 그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는 비행기가 있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내가 밟고 지나가는 고비초원의 풀꽃 하나하나에 강한 애수를 느꼈다. 삼십년간 이 땅을 동경하였던 심상풍경에 언제나 이 손가락 길이 정도쯤 되는 몇 억 개의 풀꽃 무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존재하였다. 이 열은 보라색 꽃 이름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별명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을 쫓고 있던 청년(지금 짐을 싣고 있다)에게서 들었다. ‘고빈 하탄(고비의 아내)’이라고 한다. 이 근처에서 유목하는 무리들은 모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언제 다시 이 풀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대지에 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잠시나마 쓸쓸한 감정이 지상 위에 남아 있을 것만 같았다. (「고비의 아내」 『몽골기행』 p.317)

私は、機体にむかって歩きだした。踏んでゆくゴビ草原の草花の一本々々につよい哀愁を感じた。三十年間、この土地にあこがれた心象の景色に、つねにこの指ほどの長さの、そして一望何億本も風にそよいでいる草花のむれが入っていた。この薄紫色の花の名は、さきに触れた。しかし、別名のあることを、さきに馬を追っていた青年(いま荷物を積みこんでいるが)からきいた。ゴビ・ハタン(ゴビの妻)という。このへんで遊牧する連中はみなそう称んでいる、という。この草花の

18) 이은경 『시바 료타로의 한국 인식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3

そよぐ大地に、このつぎいつ来ることができるかと思うと、ちょっとつらい感情が地上に残りそうだった。(「ゴビン・ハタン」 『モンゴルの紀行』 p317)

두 번째의 몽골을 방문했던 1990년도 몽골 역사상 중요한 날짜였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동유럽에 과급되어 이윽고 몽골에 민주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해였다. 이러한 민주화의 공기 속에서 시바는 두 번째의 몽골 방문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방문 때 통역을 맡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시바는 두 번째의 몽골 방문 당시의 정황을 『초원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몽골인민공화국(호칭은 집필시 그대로)이 그러하다. 그곳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신이 살아 있다, 라고 『초원의 기록』의 원고를 쓰고 있는 도중, 신문에 몽골의 정치상황이 보도되었다. 사회주의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또 선거로 대통령제가 채용되어 오치르바트씨가 선출되었으며 그리고 소수파에서 부대통령으로 곤치쿠드루씨가 약관 36세의 나이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홍노」 『초원의 기록』 p.15)

モンゴル人民共和国(呼称は執筆時のまま)がそれである。そこではペレストロイカがすすんでいる、ところがこの稿を書いているときも新聞にもモンゴルの政情が報じられていた。社会主義が有名無実になったこと、また選挙による大統領制が採用され、オチルバト氏がえらばれ、さらに少数派から、副大統領としてゴンチクドル氏が、三十六歳のわかさで選出されたことなどが報じられていた。(「匈奴」 『草原の記』 p.15)

멀리 떨어진 몽골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가 보도되고 있는 중에 시바는 『초원의 기록』의 원고를 집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의하여 시바는 17년 전에는 여러 정황에 의하여 듣지 못했던 히로인 체배그마의 고난의 삶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 '유목 민족 처 농경 민족' 관점

시바는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몽골사람들의 유목국가는 항상 그 남쪽에 펼쳐져 있는 농경국가인 중국사람들의 나라와 관계를 맺어왔다. 그들은 때로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때로는 중국을 정복하고 때로는 교역하고 때로는 복종하면서 이윽고 민족전체로 약소화해 갔다. 아시아의 역사는 매우 유력한 시점으로서 기마민족 국가와 농경국가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기내에서」 『몽골기행』 p.220)

数千年の歴史を通じて、モンゴル人の遊牧国家は、つねにその南方に農耕国家としてひろがる中国人の国と関係をかさねてきた。ときに中国を敵対し、ときに中国を征服し、ときに交易し、ときに服従しやがて民族ぐるみ弱小化した。アジアの歴史は、きわめて有力な視点として、騎馬民族国家と農耕国家のたたかひの歴史だったといふことができる。(「飛行機の中で」 『モンゴル紀行』 p.220)

수 천년 동안 유목민족인 몽골과 한족(漢族)인 중국은 이웃하여 살아왔으며 두 민족은 서로 교역도 하였지만 주로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런 가운데 몽골은 민족 전체로 약소화 되어 갔다. 이러한 기마민족 국가(북방민족)와 농경국가(한족)의 투쟁을 동아시아의 역사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북방아시아의 대지에 있는 기마민족과 중국본토의 경작지에 있는 농경민족의 투쟁의 역사로서 파악할 수 있다. 여름과 가을 몽골고원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풀이 마를 경우 그들은 풀을 구하여 변경 쪽으로 남하하였다. 기마민족은 변경지역을 자신들의 유목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곳은 한족의 손에 의하여 경작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습격과 약탈이라는 정해진 흥분이 일어났지만 기마민족의 진짜 목적은 농경민족에게는 해가 되는 잡초였다. 잡초를 얻고 가축을 키웠으며 때로는 몇 년 연속해서 거주할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거주가 길어지면 농경민족은 토지를 그들에게 빼앗겼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몽골인, 이란인, 혹은 아라비아인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하다.

“왜 농경민은 토지에 집착하는 걸까 ”

라고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쪽이 오히려 기이하고 이상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울란바타르」 『몽골기행』 pp.224-225)

東アジア史は、北方アジアの台上にいる騎馬民族と、中国本土の耕作の適地にいる農耕民族の抗争の歴史として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夏、秋のモンゴル高原が多雨で、冬に草が枯れる場合、かれらは草をもとめ、辺境にむかって南下する。辺境は騎馬民族にとってそこも自分たちの遊牧地と思っているのに、そこはすでに漢民族の手で耕地になっている。そこで襲撃と掠奪というお定まりの凶変がおこるが、騎馬民族にとって真の目的は、農民族にとって害であるところの雑草なのである。雑草を得て家畜を養う。ときに連年居がすわることがある。連年居がすわれば、農耕民の印象からみる土地をかれらに奪われたようにもみえるが、しかし遊牧民族はモンゴルひと、イラン人、あるいはアラビア人の如何を問わず、土地についての所有欲は信じがたいほど薄い。

「なぜ、農耕の民は土地に執着するのか」

と、当時のかれらにすればむしろそのほうがで奇怪で不思議だったにちがいない。(「ウランバートル」 『モンゴル紀行』 pp.224-225)

동아시아의 역사는 북방의 기마민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민족과의 투쟁의 역사로 파악할 수 있다. 기마민족은 오랫동안 초원에서 유목을 생업으로 하였으며 한족은 초원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었다. 따라서 두 민족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두 민족의 관계는 그리 조화롭지 못했다. 기마민족들은 중국의 변경 역시 자신들의 유목지라 생각하여 초원을 찾아서 남하하나 이미 그곳은 한족들에 의하여 논밭으로 일구어져 경작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를 되찾기 위하여 습격과 약탈을 반복하게 되지만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토지를 변방의 기마민족에게 약탈당했다고 볼 수 있었다. 초원에서 자라는 풀은 유목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농경민족에게는 풀은 단지 잡초에 불과하여 반드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시바는 이처럼 두 민족의 항쟁은 두 민족의 생업의 차이에서 오는 본래적인 것으로 보았다.

만리장성이야말로 유목국가와 농업국가의 항쟁의 상징이었다. (「흉노」 『초원의 기록』 p.7)

長城こそ遊牧国家と農業国家のせめぎあいのしるしであった。(「匈奴」 『草原の記』 p.7)

보통 만리장성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고 일컬어진다. 중국본토의 북방에 몽골지역과의 사이에 축조된 총 27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은 BC 221년에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자 그 전에 연(燕)·조(趙) 등의 북쪽 변방에 구

축했던 성을 증축 개축하여 서쪽의 감숙성(甘肅省) 남부 민현(岷縣)에서 황하강 서쪽을 북상하여 음산(陰山)산맥을 따라 동쪽으로 뻗어 요동(遼東)의 요양(遼陽)에 이르는 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흉노에 대한 방어선을 이룩하였다.¹⁹⁾ 이처럼 만리장성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된 것이며 한대에 들어서는 거란, 돌궐 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바는 이러한 관점을 부정하여 『초원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만리장성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쓰고 있다.

만리장성의 안에 있는 한족의 제국은 바깥의 북방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 (농경이라는 입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북방은 항상 추악하며 침략자란 인상을 만들어왔다. 이른바 자기 멋대로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농민들 쪽이 초원의 침략자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흉노』 『초원의 기록』 p.16)

その内側である漢民族帝国では、外側である北方について数多く書かれてきた。当然ながらその立場農耕という立場) に拠って書かれ、北方はつねに醜悪であり、侵略者として印象づけられてきた。いわば、書き放題だった。むしろしばしば農民のほうが草原への侵略者だったのではないか。(『匈奴』 『草原の記』 p.16)

흉노족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나 한족은 북방에 대해서 많은 기록, ‘자기 멋대로의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한족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 즉 농경이란 입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북방민족은 언제나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침략자로 그려지고 있지만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농민들이 초원의 침략자였다.

이상의 상상은 역대의 중국인에게 미안하지만 오히려 자주 농민들 쪽이 초원으로 들어간 침략자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인구가 증가하자 항상 미개간 토지를 찾아 흉노의 땅인 초원에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서 곡괭이로 땅을 일구었다.

유목민족은 초원의 땅을 파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초원은 동물처럼 살아있는 껍질로 뒤덮여 있어서 그 껍질은 얇으면서도 한편으로 포장된 것처럼 단단하여 그로 인하여 흙 표면 아래의 토양이 바람에 불리는 것을 지켜주었다.

더욱이 망처럼 풀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표층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농민은 이러한 것에 전혀 무관심하여 곡괭이를 갖고 일격으로 그 표층을 분쇄하고

19)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편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 제6권, 동아출판사 1990 p.386

만다. …(중략)… 한번 대지의 표층이 바람에 날아 가버리면 두 번 다시 초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농민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하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였다.

유목민의 하늘을 그것을 악이라 하였다.

“파지 말라”

고 아마도 흉노와 그 후예인 몽골인들은 끊임없이 말해 왔을 것이다. (「흉노」 『초원의 기록』 pp.16-17)

以下の想像は、歴世の中国人には申しおけないが、むしろしばしば農民のほうが草原への侵略者だったのではないか。かれらは人口増加のあげく、つねに処女地をもとめ、匈奴の地である草原によろばい出て、鋤をうちこむ。

遊牧民は、草原の土を掘ることを極度にいやがった

草原は、動物のように生きた皮でおおわれている。その皮は薄く、しかも舗装されたように硬く、それによって、表土の下の土壌が風に吹き飛ばすことから守られてきた。

さらには草が、根を網のように張ることによって表土をひきしめてきたのである。

農民にはそういう頓着はなく、鋤で一撃してその表土を分碎してしまう。…(中略)…ひとたび表土が吹きとばされれば、二度と草原はもたらぬのである。

農民が土を耕すことは、天のよろこぶところとされる。

遊牧民の天は、それを悪としてきた。

「掘るな」

ということを匈奴や、その後のモンゴル人はおそらく言いつづけたはずであった。(「匈奴」 『草原の記』 pp.16-17)

한족은 점점 늘어나는 인구 증가 때문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흉노의 땅에 곡괭이로 경작하곤 하였다.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의 초원이 경작지로 변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초원은 살아 있는 동물의 가죽과 같은 덮개가 덮여 있다. 그 덮개가 아주 얇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포장된 것처럼 딱딱하고 견실하여 덮개 밑에 있는 흙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지켜 주었다. 한편 농부들은 땅을 가는 것을 하늘이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목민족들은 땅을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며 ‘땅을 파지 말라’고 자손 대대로 교훈을 전해줬다. 오늘날에도 초원에서 유목민들 사이에는 ‘땅을 파지 말라’는 전통적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유목민족과 한민족의 농민은 똑같이 대지에 살지만 유목민족들이 풀이 자라는 대지, 즉 초원은 그들의 삶의 기본이지만 농민들은 대지에 자라나는 풀을 싫어해서 초원을 호미로 파서 경작지를 만들어 그곳에 씨를 뿌리

고 사는 농사가 그들의 삶의 기본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에 의해서 두 민족 사이는 오랫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만리장성은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면 한민족이 북방의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기념비적 구조물임을 앞서 언급했다. 그러나 시바는 발상을 전화하여 이것을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라는 대립으로 파악하여 유목민족의 눈으로 만리장성을 바라보고 있다.

두 민족의 관계는 중국 쪽의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한족은 북방의 기마민족을 멸시의 감정을 담아 ‘흉노(匈奴)’라 불렀다.

옛 한족 문명은 그들의 종족명을 한자로 옮길 경우 형편없는 글자를 만들었다. 개사슴록변(犛扁)이나 발 없는 벌레 치 변(多扁) 등과 같은 문자를 만들었다. 개사슴록변이나 발 없는 벌레 치 변(多扁)과 같은 한자의 편을 사용한 종족명이 많다. 주(周)나라 시대 북방 몽골 고원에 있던 민족을 험윤(獫狁)이라 부르던 적도 있었다. 험(獫)은 사냥개의 일종으로 주둥이가 긴 개를 말한다. 개의 일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험윤(獫狁)이 한나라 시대가 되면 흉노(匈奴)라고 부르게 되었다. 흉(匈)은 가슴(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흉흉하다고 하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흉노를 다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저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 실제로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서 남하하여 한족의 농경지대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북방의 기마민족은 그들 한족에게는 시끄럽고 귀찮은 무리들로 보였을 것이다. (「니가타에서」 『몽골기행』 p.167)

古い時代の漢民族文明は、かれらの種族名を漢字にする場合、ひどい文字をつかった。犛扁とか、多扁とかであらわした文字をつかった。犛扁とか、多扁とかであらわした種族名が多い。周の時代、北方のモンゴル高原にいた民族を、獫狁などとよんでいたころもある。獫は獵犬の一種で口さきの長い犬をいう。犬の仲間に入れていたのである。この獫狁が、漢の時代になって匈奴とよばれるようになる。匈は胸という意味もあるが、匈々といえは喧しくさわぐ、という意味ももっている。漢民族から見れば匈奴は言葉を異にするため、やたらに言い騒いでいるというふうな印象をうけるし、げんにかれらは騎馬を駆けて南下し、漢民族の農業地帯を荒らすために、その点でもこの北方の騎馬民族は騒がしく匈々たる連中にみえたであろう。(「新潟から」 『モンゴル紀行』 p.167)

한족들은 북방의 오랑캐의 이름을 멸시의 기분을 담고 뜻이 좋지 않은 한자 — 예를 들면 개사슴록변(犛扁)이나 발 없는 벌레 치 변(多扁) 등과 같은 문자를 만들어서 붙였다. 흉노를 처음에는 ‘험윤(獫狁)’이라 하여 사람이 아닌 주둥이가 긴

사냥개의 일종에 넣기도 하고 이 말이 한(漢)나라 시대가 되어 흉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흉흉하다, 시끄럽다는 말에서 온 것이라 한다. 흉노족의 말이 한족과 달라서 단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마민족이 남하하여 한족을 귀찮게 했다는 의미로도 이러한 글자를 썼을 거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몽골의 漢名 ‘몽고(蒙古)’ 역시 바보, 무지라는 의미와 어감이 중첩되고 있어 오랑캐의 후손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는 말이다.

한족은 새외민족, 즉 북방의 기마민족을 ‘오랑캐(夷狄)’ 라고 여겼다. 이외에도 중국의 역사서에는 북적(北狄), 용적(戎狄), 이적(夷狄), 야만(蠻狄) 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기마민족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타국들을 모두 다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사람은 문명(자신들의 문명)에 사람은 물들어야한다는 신념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민족도 이에 물들면 사람으로 취급하여 王化되었다고 하고 물들지 않는 민족은 『漢書』에서 말하듯이 짐승(鳥獸)과 마찬가지로 여겼다. (「흉노」 『몽골기행』 p.218)

中国人は、文明(自分の)というものには、人は染まるべきものだという信条が古来つづいている。異民族でも染まれば人としてあつかい、王化に浴したとするが、染まらない民族は、『漢書』におけるように、鳥獸にひとしい。(「匈奴」 『モンゴル紀行』 p.218)

즉, 중국은 중화(中華)사상에 의하여 자기나라만 文明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유목민족의 조상인 흉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야만인들이 공자와 맹자를 읽지 않는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문명을 수용하여 동화되면 왕화(王化)되었다고 하여 사람으로 취급하였지만 왕화되지 않으면 짐승(鳥獸)과 마찬가지로 여겼다.

중국의 주변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고 해도 좋을 정도 중화의 풍습을 연모하여 중국문명을 채택하였다. 조선과 베트남에 있어서도 농후하며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흉노」 『몽골기행』 p.218)

中国の周辺国家というのは、ことごとくといっていいほど中華の風を慕い、中国文明をとり入れた。朝鮮とベトナムにおいてもっとも濃厚で、日本もその例外ではない。(「匈奴」 『モンゴル紀行』 p.218)

이와 같은 연상은 중국의 주변국가, 한국과 베트남, 일본과 같은 주변국가도 예외 없이 모두 중국문명을 받아들인데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숭양하였다고 본다.

더 심각한 것은 퉁구스계의 반농반목(半農半牧)의 이민족으로 그들은 5胡16国 시대 이후 중국내부에 침입하여 나라를 세운 적이 자주 있었으며 때로는 金제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를 수립하거나 청나라와 같은 대국도 세웠지만 그 모두가 중국문명에 동화하여 그 고유의 풍속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 그 자체마저 대륙의 도가니 속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흉노」 『몽골기행』)

もっともひどいのは、東胡系の半農半牧の異民族で、かれらは五胡十六6国の時代以来、中国内部に侵入して国を樹てることがしばしばで、時には金帝国のように強大なものも樹て、最期には清朝のようなものまでつくったが、そのすべてが中国文明に同化し、その固有の俗をすてたばかりでなく民族そのものまでが大陸のるつぼの中で溶けはててしまった。(「匈奴」 『モンゴル紀行』 p.218)

중국문명을 수용한 탓에 고유의 풍습을 잃고 민족마저 중국대륙의 도가니 속에 녹아버리고 멸망한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문명의 폐해에서 벗어난 유일한 기마민족이 바로 몽골이었다. 즉 시바는 유목민족 국가 중에서 몽골인의 장점을 중국문명에 동화되지 않는 점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그가 평소 갖고 있는 역사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사람만이 예외인 것이다. 그들은 고래로부터 중국문명을 전혀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성을 붙이는 따위의 흉내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복 그 외의 풍속도 바꾸지 않았으며 언어의 면에서도 다소의 차용어가 있기는 하나 그 수는 매우 적다. 그들은 대륙내부에 들어가서 원나라를 세웠지만 원나라가 멸망하자 온난한 중국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고 곧장 집단을 이루어 북방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 불가사이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흉노」 『몽골기행』 p.218)

ところが、モンゴル人のみが例外なのである。かれらは古来、中国文明をまったくいってもいいほどに受けつけず、むろん姓をつける真似もせず、また衣服その他風俗を変えず、言語の面でも多少の借用語があっても、その数はきわめてすくない。かれらは大陸内部において元帝国がつくったが、そのときも中国文明を拒絶した。元帝国がほろぶと温暖の中国に愛着ももたず、さっさと集団で朔北の地へ帰った。ふしぎな民族というほかない。(「匈奴」 『モンゴル紀行』 p.218)

즉 몽골만이 이러한 주변국가와는 달리 중국문명을 흠모하여 따라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의 풍속을 지켜나간 민족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그렇다면 몽골인의 중국 문명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러나 몽골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농경을 천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특히 원나라 시대에는 농경민인 한족을 천한 노예처럼 취급하였다. 오히려 장사꾼인 위구르인이나 이란인, 아라비아인을 한족보다 상층의 민족으로 여겨 높은 계층에 두었다. (「흉노」 『몽골기행』)

モンゴル人からみれば、元来、農耕をいやしむために、とくに元時代は、農耕民である漢民族を賤奴のようにあつかった。むしろ商売をするウイグル人やイラン人あるいはアラビア人を漢民族より上等の民族として上の階層に置いた。」(「匈奴」 『モンゴル紀行』 p.218)

유목민의 눈에서 본다면 한족은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파헤치는 농민에 불과하여 천하게 보였을 뿐이다. …(중략)… 예교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슬람처럼 세계지리나 산물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 지리와 산물이야말로 당시 몽골인이 가장 알고 싶어했던 부분이였다.

단지 한족이 이슬람보다 우월한 것은 목조건축기술과 금은동을 사용한 세공 정도였다. 이 때문에 몽골인은 한족을 직인으로 취급하였다. (「검은 모래밭」) 『초원의 기록』 p.740)

遊牧民の目からみれば漢人は地を這って土を掻く農民でしかなく、いやしむべき者たちとしか映らなかつた。…(略)… 礼教思想はもっていたものの、イスラムのように世界の地理や物産の知識をもっていなかつた。地理と物産こそ、当時のモンゴル人の知りたいものだったのである。

ただ漢人がイスラムより優越していたのは木造建築の技術と、金銀や銅をつかつての細工しごとだつた。このため、モンゴル人は漢人を職人としてあつかった。(「黒い砂地」 『草原の記』 p.740)

원나라 시절에는 한족을 천한 노예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장사꾼인 위구르인이나 아라비아인을 한족보다 상층의 민족으로 보고 높은 지위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다. 유목민의 눈으로 보면 중국 사람이란 그저 땅을 파헤치는 것 밖에 모르는 귀찮은 민족이라고 여겼다. 중국 사람들이 공자 맹자를 모른다고 흉노들을 경멸했지만 이러한 맹자 공자가 대표로 되는 중국문명에 대해서 몽골은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몽골인들은 이슬람인이 갖고 있는 지리와 제조 지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중국인들이 이슬람인들 보다 뛰어난 점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 문화가 아니라, 목조기술·금속·청동의 세공업 분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한인(漢人)을 직인으로 삼아 고용하기도 했지만 위구르인이나 이란인이나 아라비아인 보다 아래 등급 계층에 두었다.

다시 말해 한족이 유목민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목민 역시 한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유목민인 몽골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이라는 어감은 단지, 고리대금업자, 부자, 군대, 관리 등이란 인상의 총합이었으며 그들은 단지 초원의 땅을 파헤치는 족속이라 생각할 뿐이었다. 이처럼 시바는 일반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주변국가의 눈으로 한민족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바의 자세는 시바의 역사관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소수에서 다수를 보거나 주변에서 중앙을 본다는 시바사관(司馬史觀)을 만들었다.



3. 몽골 근대사 속의 체배그마의 삶

『초원의 기록』은 체배그마라는 몽골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가 걸어온 역경의 인생을 통하여 몽골민족이 겪었던 파란의 역사를 겹치면서 몽골민족의 희망과 그 발자취를 그려내고 있다. 체배그마는 네 곳의 초원, 즉 소련·만주·중국·몽골초원을 거치며 격동하는 현대사의 거센 파도를 헤쳐내서 기구한 운명을 용감하게 살아낸 몽골여성이었다.

주인공은 내가 초원에서 만난 체배그마라는 여성이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일본 열도의 한 구석에서 그녀를 기억하려고 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있는 몽골고원에 대해 쓰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녀가 선명히 떠오르지 않는다. (「흉노」 『초원의 기록』 p.14)

主役は、私が草原で出会ったツェベクマさんという女性なのである。しかしまこのように列島の一隅で彼女のことを思いだすとき、滑稽におも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このひとを載せているモンゴル高原について書かねば、私の中で彼女が鮮明になって来ないのである。(「匈奴」 『草原の記』 p.14)

시바는 『초원의 기록』에서 몽골여성 체배그마가 작품의 히로인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시바에게 몽골여성인 체배그마의 존재는 시와 같은 이미지 밖에 없는 몽골의 이미지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기체와 같은 것을 나는 쓰고 있다.

정말 몽골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17년 전 체배구마씨를 만남으로써 조금은 고체가 되었다. (「시베리아의 난로」 『초원의 기록』 p.32)

気体のようなものを書いている。

まことにモンゴルは、私にとってそうであるというほかない。

十七年前、ツェベクマさんに出会ったことで、すこしは固体になった。 (「シベリヤの煖炉」 『草原の記録』 p.32)

체배그마를 만남으로써 기체와 같이 막연하였던 몽골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시바의 부인 후쿠시마 미도리(福島みどり)씨도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국 체배그마씨를 만나러 몽골에 간 것이지요. 만일 체배그마씨가 없었다면 단지 몽골뿐이었다면 남편도 그렇게까지 흥미를 갖지 않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²⁰⁾

시바가 두 번째 몽골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몽골이란 나라에 대한 흥미만이 아니라 체배구마라는 여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시바는 유목민족의 한사람인 그녀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시바가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하였을 1973년 당시 울란바타르 호텔의 섭외역으로 여행객의 통역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1924년 출생으로 시바 보다 한 살 연하였다.

소련을 경유하는 우여곡절의 여행 끝에 드디어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여 비행기의 트랙을 내리자 시바는 부드러운 자연과 같은 울란바타르의 맑은 공기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이런 맑은 몽골 사람들이 향수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경에서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벗을 떠올리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다보기도 한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나서니 사십대의 몽골 부인이 시바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초록빛 몽골 옷에 가느다란 은색 벨트를 매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작고 검은 눈동자가 영리한 소녀처럼 잘 움직였다. 무역성의 관리인 체배그마씨였다.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여행기에서 읽고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초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울란바타르」 『몽골기행』 p.227)

ビルの中に入り、一定の手続をすまして二階へあがると、四十年配の肥ったモンゴル婦人が立っていた。草色のモンゴル服に細い銀色のベルトを締め、手にはバック・スキンの小さなハンドバックを提げている。色白で、小さい黒い瞳が、利発な少女のようによく動く。貿易省の役人である、ツェベクマさんである。私はこの人の名を、他の旅行記で読んで知っていたために、初対面のように思えない。(「ウランバートル」 『モンゴル紀行』 p. 227)

그녀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쓰고 있었지만 일본을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구름」 『초원의 기록』 p.114)

彼女は呼吸のように自然な日本語をつかいつつ、しかも日本を訪ねたことはない。(「雲」 『草原の記』 p.114)

20)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 朝日新聞社 2004 p.444 재인용

몽골의 무역성의 관리로서 소녀와 같이 검고 작은 눈동자를 반짝이는 40대 중년 몽골여성이었는데 한번도 일본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였다.

체배그마씨는 당시 울란바타르 호텔의 섭외역을 맡고 있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구사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결단력은 외무대신을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일컬어진다. (「도시」 『초원의 기록』 p.108)

ツェベクマさんは、当時のウランバートル・ホテルに、渉外係としてつとめていたのである。

ロシア語と中国語と日本語に堪能というだけではなく、思考力と決断力はそのまま外務大臣がつとまるといわれていた。(「城市」 『草原の記』 p.108)

일본어 외에도 러시아어, 중국어의 구사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결단력이 외무대신직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여성이었다.

시바는 1973년 몽골여행에서도 그녀의 가족이며 그녀의 일생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시바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선 선생님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대답하겠어요”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시 몽고는 사회주의국가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언급할 시대가 아니었다. 체배그마는 아직 때가 아님을 말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을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시바는 그녀의 이러한 말을 잊지 않고 17년을 기다렸다.

시바는 『초원의 기록』의 편집자인 이도 키와코(伊藤貴和子)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실은 내 자신 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테마가 있지. 쓰고 싶은 여성이 있어요. 17년 동안 내 머리 속 한구석에는 항상 체배그마씨의 일이 차지하고 있지요.

実は自分の中に、ずっと温めていたテーマがあるんだ。書きたい女性がいるんだ。十七年間、頭の片隅にいつもツェベクマさんのことが残っていた。

17년 전 몽골에서 만난 체배그마라는 몽골여성이 뇌리에 떠나지 않았으며 그녀의 일생을 소설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딸과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동이었지만 어린 딸을 데리고 고비사막을 걸어서 넘어서 예전에 외몽고라고 불리던 몽골국으로 도망을 갔다. 고비사막을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횡단하는 행동은 위험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막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다수자에게 모르는 소수자의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족 나라와 운남의 길』)

彼女は娘と自分にも危険が及ぶことをおそれ、信じがたいほどの暴挙だが、幼女をつれてゴビ砂漠を徒歩で越えて、かつて外蒙といわれたモンゴル人の国へ逃げたのである。ゴビ砂漠を子連れで徒歩で横断するなど、危険などという概念をとおりこしたほどのものだが、あえて死の砂漠を越えざるをえなかったところに、多数者にはわからない少数者の感情があるといってい。 (『中国・蜀と雲南のみち』)

시바는 1981년 중국의 사천성(四川省)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에도 시바는 체배그마를 떠올리고 있다. 그만큼 체배그마의 일생은 작가의 지대한 관심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바에 의하면 사천성은 원래 ‘소수민족’의 나라였다. 이 중국이란 대국에서 소수민족을 생각하는 여행이었기에 시바는 체배그마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즉 체배그마의 역경의 인생을 大國 중국 속에 사는 소수민족의 삶에 겹쳐서 그녀를 기억해 내고 있다. 『초원의 기록』은 결국 체배그마라는 한사람의 몽골여성이 겪은 가혹한 체험을 통하여 몽골이 겪었던 20세기 동아시아의 격동과 소수자로서의 유목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바의 이러한 마음을 그녀에게 전한 것은 고이부치 교수였다. 고이부치 교수의 주선으로 시바와 체배그마씨의 재회는 17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초원의 기록』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방문은 1990년은 몽골에 민주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해로 몽골 역사상 중요한 시기였다. 즉 몽골의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시바는 재차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다. 체배그마는 1973년 당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말하지 못 했던 자신의 삶의 궤적을 민주화의 공기 속에서 이야기할 결심이 서게 되었을 것이다. 시바와 동행한 고이부치에 의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3시간정도로 끝났지만 그녀의 일생은 생각이상으로 치열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의 팽팽한 긴장

감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네 곳의 초원을 거쳐서 지금 이곳에 있다.

최초의 초원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의 소련 영토였다. 그곳에서 자라나 소녀 시절 소위 만주라고 불리는 흥안령의 서쪽 기슭의 홀랜보이르 초원에 와서 그곳에서 자랐다.

두 번째 초원인 홀랜보이르 초원에서 청춘을 맞이하였다. (「돌아오는 이야기」 『초원의 기록』 p.192)

彼女は四つの草原を経て、いまここにいる。

最初の草原は、シベリアのバイカル湖に近いソ連領だった。そこで生まれ、幼女のときにいわゆる満州とよばれていた地の興安嶺の西のふもとのホロンバイル草原にきて育った。

二つ目の草原であるホロンバイル草原で、青春を迎えた。(略)フフホトの草原のまちに住んだ。(「帰ってくる話」 『草原の記』 p.192)

그녀는 현재 몽골에서 살고 있지만 1924년 바이칼 호수의 근처에서 브리야트 몽골인으로 태어난 이후 네 곳의 초원을 거쳤다. 브리야트 몽골인은

브리야트인은 몽골인의 일파이면서도 고원에 살지 않고 시베리아의 저습지에서 옛날부터 유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시베리아로 진출해 온 러시아인과 농후한 접촉을 하여 러시아인이 갖는 서구적인 것도 일찍부터 받아들였다. 그들의 지적 수준이 다른 몽골인 보다 높았기 때문에 고원의 몽골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의 대부분이 브리야트인이었다고 한다. (「브리야트 아가씨」 『몽골기행』 p.213))

ブリヤート人はモンゴル人の一派ながら、高原に住むことをせず。シベリアの低湿地で古来、遊牧を営んできたために、シベリアに進出してきたロシア人と濃厚な接触をし、ロシア人のもつ西歐的なものをもっと早い時期にとり入れた。かれらの知的水準が他のモンゴル人より高かったために、高原のモンゴルで革命がおこったとき、その指導者のほとんどがブリヤート人だったといわれる。(「ブリヤートの娘」 『モンゴルの紀行』 p.213)

몽골족의 한 일파로 대대로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지만 코사크의 진출이 시작되는 17세기 이후 나나이인 등 시베리아 선주민과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화하여 서서히 종래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일찍이 서구적인 것을 수용하여 몽골 혁명에서도 지도자의 대부분이 브리야트 출신이었다고 한다.

체베그마는 세살 때 러시아의 혁명의 여파로 부모와 같이 만주의 홀랜보이르

라는 초원지역으로 피난하여 열살 무렵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1932년 이 지역이 만주국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서 일본인이 들어오게 된다. 그녀는 13세부터 16세까지 3년 간 다카쓰카 시게코(高塚シゲ子)라는 여성이 창립한 학교에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웠으며 선생님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켜 그것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만주국의 붕괴로 이후 체배그마는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의 소수민족으로 살게 되었다. 이처럼 브리야트족 몽골인이지만 근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련·중국·일본이라는 대강국 틈에서 성장한 것이다.

2년 후 중국에서 내몽골 지구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내몽골은 외몽골과 같이 독립하자’는 내몽골의 독립과 자치를 구하는 소리가 높았던 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립 운동에 관여하여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외동딸 이미나를 두었다. 남편은 체배그마와 결혼한 후에 이름을 몽골어인 부렌사인으로 바꿨다. ‘부렌사인’은 ‘모든 것이 좋다’라는 뜻이다. 남편은 도쿄의 대학에서 유학한 학자로 울란호트 사범대학교에서 교수직에 있다가 1957년 내몽고에서 처음으로 생긴 내몽골 대학교에 부임한 몽골 문학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반우파 투쟁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우자 남편은 ‘우익’이란 죄명으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결별을 결의하여 출국을 결심하나 가족 모두가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1959년 12월 다섯 살짜리 딸만을 데리고 몽골로 향하였다.

그녀의 일념은 오로지 이미나의 작은 몸을 중국에서 빼내어 이 몽골인의 나라에 맡기고 싶다고 하는 것뿐이었다. (「돌아오는 이야기」 『초원의 기록』 p.211)

彼女の一念は、イミナの小さい体を中国から剥ぎとってこのモンゴル人の国にあずけたい、ということのみだった。(「帰ってくる話」 『草原の記』 p.211)

외동딸 이미나를 몽골에서 키우고 싶은 것이 그들 부부의 절실한 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몽골에 도착하자 그 때 까지 갖고 있었던 중국 국적을 버리고 몽골공화국 국적을 신청했지만 몽골정부에게서 아무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무국적인 채

울란바타르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의 일을 알선 받고 20년 동안 맡은 일을 해왔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면 그 지역의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국제법에 따라 겨우 모녀는 몽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몽골인이 자기 나라의 국적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후 국제법에 의해서 겨우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녀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위해 매일 식사를 차리면서 남편의 안전을 기원했고 26년 만에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은 투옥생활로 병이 들어 재혼하여 아내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딸의 이름으로 남편 부부를 몽골에 초대하였고 남편은 몽골에 와서 몇 달 후 그녀의 품속에서 눈을 감는다.

체베그마는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4개의 초원을 돌아다녔다. 태어난 바이칼 부근의 시베리아 초원, 만주 초원, 내몽골 초원을 거쳐 마지막으로 몽골초원에 정착한 것이다. 그녀가 살아왔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소련, 중국, 일본이란 대국에 둘러 쌓여서 한 때는 소련, 중국,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존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녀의 조국 역시 그러한 근대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가혹한 인생 속에서도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의지하여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이었다.

시바는 『초원의 기록』에서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반생을 직접 듣고 난 후 다음과 같이 감상을 적고 있다.

“체베그마씨, 당신의 인생은 정말 위대하군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쉬지 않고 대답했다.

“저에게는 오로지 희망뿐인 인생이었지요.”

갑자기 격렬한 오열이 들렸다. 남자답게 마른 그 소리는 동석하고 있었던 고이부치 교수의 커다란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 쪽을 보지 않고 애썼다.

체베그마씨가 말하는 희망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이 초원의 민족의 희망과 운명을 겹쳐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고이부치 교수는 물론 잘 알고 있었다. (「돌아오는 이야기」 『초원의 기록』 pp.222-223)

「ツェベクマさんの人生は、大きいですね」

と、私がいうと、彼女は切りかえすように答えた。

「私のは、希望だけの人生です」

激しい嗚咽がおこった。男らしく乾いたその音が、同席している鯉淵信一教授の大きな体から出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が、私はそのほうを見ないようにした。

ツェベクマさんのいう希望が、自分自身の人生とこの草原の民族の希望と運命をかきねたものであることは、鯉淵教授はもちろんよくわかった。（「帰ってくる話」『草原の記』 pp.222-223）

“저에게는 오로지 희망뿐인 인생이었지요.”라는 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맺고 있듯이 치열하게 살아온 몽골의 한 여성의 삶을 지탱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호리우치 노부히사(堀内信久)는 『초원의 기록』에서 차지하는 체베그마의 생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시바의 공상으로 시작되어 그녀의 ‘희망뿐인 인생’이라는 말에 이르는 『초원의 기록』은 후쿠다 소년이 동경해왔던 초원을 달리는 오랑캐 집단의 한 몽골 여성의 실제 인생에 의하여 방증되고 구체화되었으며 동시에 이것이 인간 존재의 깊이에 있어서 파악된 기록이었다.²¹⁾

즉 『초원의 기록』은 몽골 초원에 살았던 한 민족의 삶이 체베그마라는 한 여성의 실제 인생 속에서 구체화되어 인간존재의 깊이로 높이 승화된 작품이며 『초원의 기록』은 『몽골기행』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으며 몽골기행은 초원의 기록에 의하여 완결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시바에게 기체와 같이 존재하는 몽골의 이미지는 소수민족으로서 대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가혹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몽골여성 체베그마의 삶을 통하여 ‘몽골’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1) 堀内信久 『司馬遼太郎の風景②』日本放送出版協会, 1998 p.188

VI. 결 론

일본의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두 차례의 방문 후에 집필한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을 분석하여 시바의 몽골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시바는 어린 시절부터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시바는 대학에서 몽골어를 전공하였으며 최초의 소설 『고비의 흉노』와 최후의 소설 『달탄질풍록』이 모두 몽골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다.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에서 유목민의 조상 흉노와 한족(漢族)의 관계 및 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와는 먼 역사, 소수에서 다수를 보는, 주변에서 중앙을 본다고 하는 시바의 역사관(司馬史觀) 속에서 몽골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유목민족사회에도 관심을 두어서 이를 명쾌하게 ‘문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몽골의 유목민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문화로서의 유목의 특수성을 취급하여 타문화와 비교연구는 방대하게 많으며 유목이 세계 문명에게 끼친 역할도 여러 각도에서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바처럼 유목 자체를 명쾌하게 문명으로 보고 역사를 논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시바는 주인공 체베그마의 인생을 중첩하여 몽골의 현대사를 그리고 있다. 체베그마는 브리야트 출신 몽골인으로 몽골족으로 태어난 탓으로 네 개의 초원을 거치면서 살아온 길은 매우 험난하였다. 남편과 헤어지고 몽골에 가서도 무국적으로 10년 간을 살았으며 국제법에 의해 겨우 몽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26년 만에 재회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해 있고 병이 깊어서 몽골에 온 후 몇 달만에 숨을 거두었다. 시바는 몽골의 역사를 치열하게 살아온 체베그마라는 몽골 여성의 삶과 중첩시킴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몽골의 기행』(1974)은 시바가 1973년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다음 집필된 것이며 이로부터 17년 후 1990년 시바는 재차 몽골을 방문한다. 이 두 번째 방문 후에 쓰여진 것이 『초원의 기록』(1992)으로 두 작품의 집필시기는 16년의 격차가 있다. 1973년 당시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1991년은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7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회의제(會議制)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기였다. 소련주도의 사회주의시대에서는 민족의 영웅 징기스 칸을 칭송하기는커녕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이데올로기 주도의 『몽골인민공화국통사』가 정부의 주도 하에서 제작되어 역사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1년 민주화가 된 후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국민대회에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걸음을 뗀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기행』과 『초원의 기록』 두 작품만을 통하여 시바의 몽골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시바의 작품을 몽골에 소개하면서 시바 문학에서의 ‘몽골’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



[참고문헌]

1. 텍스트

司馬遼太郎 『モンゴル紀行』(『司馬遼太郎全集』第48卷) 文芸春秋社 1984

司馬遼太郎 『草原の記』 新潮社 1992

2. 일본문헌

浅井清 『新研究資料現代日本文学第2卷』 明治書院 2000

オ・ジャルガルサイハン 「日本文学のセミナー:司馬遼太郎とモンゴル」 日本大使館 2004

鯉淵信一 「司馬文学の地下水脈を流れる遊牧民族という大河」 『AERA Mook 司馬遼太郎がわかる』 朝日新聞社 2000年 8月

司馬遼太郎 「私の小説」 『司馬遼太郎全集』第33卷 文芸春秋社 1977

_____ 「人間の集団について」 『司馬遼太郎全集』第47卷 文芸春秋社 1984

ス・ドルゴル 「日本文学のセミナー:モンゴルの日本文学翻訳」 日本大使館 2004

週刊朝日編集部編 『司馬遼太郎からの手紙(下)』 朝日新聞社 2004

日本近代文学館編 『日本近代文学事典』(第2卷) 講談社 1977

堀内信久 『司馬遼太郎の風景②』 日本放送出版協会 1998

文芸春秋社編 『司馬遼太郎の世界』 文芸春秋 1997

松浦玲 「史料と文学的加工—歴史と歴史小説について」 『カイエ(特集・司馬遼太郎)』
2-12 冬樹社 1979년 12월호

松本健一 『文芸別冊 司馬遼太郎』 河出書房新社 2002

和田宏 『司馬遼太郎という人』 文芸春秋 2004

3. 한국문헌

백과대사전 편집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0

이은경 『시바 료타로의 한국 인식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몽골문헌

О.Жаргалсай хан, *Тал нутгий н тэмдэглэл*, (Эдмон:1997)

<Abstract>

Shiba Ryoutaro's View on Mongolia
- Focused on the "Mongoru Kikou" and "Sougen no Ki" -

Sukhbaatar Munkhzul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Sook Chin

One of the influential Japanese novel writer Shiba Ryotaro(1923~1996) was named as 'peoples' writer for his popularity. During his life time he produced 57 long and short novels as well as critical essay.

During his childhood Shiba ha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Shewe tribe which related to Chinese dynasty. As he grew older he relentlessly tried to express his interest in the history of Shewe tribe through dozens of his essays. This deep interest in the culture of other nationals is what differs him from other Japanese writers and can only be attributed to as a specific Shiba's heritage.

His most interest in Shewe tribe lied on Mongols. Shiba had majored in Mongolian language and history and graduated Mongolian language department at Osaka Foreign Language College (presently Osak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His neutral position on many events where influenced by his knowledge of Mongolian language and history as well as his great interest and passion in Mongolians living beyond Great Chinese Wall.

On many occasions, he used to refer to or mention during his lessons and lectures about Mongolia and Mongolian culture. Especially, during his lectures whether it was on civilization, culture or nationals the word Mongolia was used and referred as a keyword thus enabling his successor to establish that Mongolia was starting point of Shiba's literature.

Shiba visited Mongolia on two occasions "On the highways" and wrote "Mongoru Kikou "(1974), "Sougen no Ki"(1992).

"Mongoru Kikou ", "Sougen no Ki" depict ancestors of modern nomads- Hunnu tribe their coexistence with neighboring Han tribe as well as their civilization. A reader can see Shiba's historic unbiased view on ideology and ancient history and h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Mongolia . In his works he also clearly defines nomadic society as a civilization. So far Mongolian nomadic society was a subject of study of many scholars. These works try to identify many aspects of the culture, try to compare it with others as well as applies different angles in trying to evaluate degree of influence it had on other civilizations. Though, he was the only one to ever define nomadic lifestyle as a civilization.

Shiba depicts modern Mongolian history through a woman called Tsevegma. She is one of the Mongolian minorities a Buriat by national and this causes her to travel through four steppes and face hardships of her life. She divorces her husband and comes to Mongolia where she had to wait for 10 years according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 be able to finally obtain Mongolian citizenship. After 26 years of separate lives her husband visits her in Mongolia but due to a incurable illness he passes away soon after his arrival. Tsevegma's hard fought survival throughout her life reminds the reader of lives of all Mongolian women and thus is quite a moving masterpiece.

After completing his Travel Mongolia in 1994 on his first trip to Mongolia he visited the country again after 17 years in 1990. Second visit produced

“Sougen no Ki” in 1992 exactly 16 years after the first book. His first book was written in 1973 coincided with the communist regime which reigned the country for 70 years while the second book was born while Mongolia launched a transformation of its political system from old to new, democratic one. During years of Peoples’ Republic of Mongolia under the watchful eyes of Soviet Union when ideology suppressed people so that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loudly say the name of their national hero Chinggis Khan the Government meticulously controlled education especially when it came to history. Though, with the first wave of democratic movements that began in 1991 the people finally elected new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through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and the Mongolia was able to make its first step as a democratic country.

Through “Mongoru Kikou ” and “Sougen no Ki”, we can feel author’s lifelong passion about Mongolia. Furthermore, he enables a reader to see broader complex picture by presenting simple facts as well as get a more detailed, center oriented view on history.